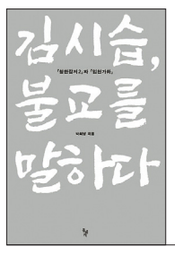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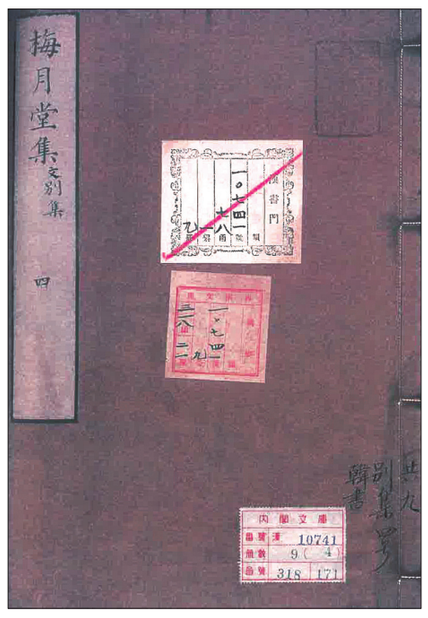
불교 말할 수 없던 시대, 불교 말하다



김시습, 불교를 말하다
박희병 지음
돌베개 / 3만5천원

저서 〈청한잡저2〉 〈임천가화〉 통해
김시습 불교론 · 전체 사상체계 조명
불교 · 유교, 높은 수준서 양자 다뤄
두 사상 우열보다 '공존' 염두에 둬
유교만 아니라 불교 역시 진리 인정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임천가화〉가 수록된 〈매월당집〉 표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단편 소설집으로 알려진 〈금오신화〉의 저자 김시습(1435~1493), 그는 불교를 배격한 조선의 백성으로 살면서 출가를 하고 법명을 받았으며, 불교를 논한 저서를 남겼다. 문학가로 사상가로 또 출가자로 다난한 삶을 살았던 그에 대한 평가와 조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신간 〈김시습, 불교를 말하다〉는 김시습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다. 이 책은 김시습이 남긴 〈청한잡저 2〉와 〈임천가화〉를 토대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불교론과 더불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그의 사상체계를 들여다본다. 김시습이 불교를 말한다.

"나의 이 글은 두 책의 성격을 밝히는 데 치력한다. 김시습이 남긴 책 가운데 불교론에 해당하는 것은 이 둘이 전부다."

저자는 위 두 편의 저술을 통해 김시습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술하고 있다. 부처를 어떤 존재로 이해했는지, 불법(佛法)의 요체는 무엇이라 생각했는지, 삼세설, 윤회설과 같은 불교 교리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군주의 불교 숭배나 출가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 출가자의 본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현실불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에 대해 밝힌다.

2부로 구성된 책에서 제1부는 김시습의 불교론에 대한 연구이고, 제2부는 김시습 불교론이 개진된 두 저작 〈청한잡저 2〉와 〈임천가화〉에 대한 역주이다.

김시습은 21세 때(세조 1년, 1455) 삼각산 중흥사에서 과거 공부를 하던 중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통곡하다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고는 삭발하고 출가했다. 법명은 설잠, 호는 청한자이다. 그리고 8년 동안 세상을 떠돌았다. 그는 유행을 멈춘 이후에 금오산과 수락산에 머물면서 〈청한잡저 2〉와 〈임천가화〉를 지었다. 〈임천가화〉를 지은 후 승복을 벗고 환속했지만 2년 후 다시 승복을 입고 입산했으며, 죽을 때까지 승복을 벗지 않았다. 이 시기 김시습은 유자로서의 사상적 정체성을 표방했다. 그럼에도 그가 불교를 부정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다. 그는 유교와 불교를 겸전함으로써 유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다. 특히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 시종 정치권력과의 긴장 속에서 인민성을 기축으로 유교와 불교를 종횡으로 오가며 높은 비판적 수준에서 양자를 다뤘다.

〈청한잡저 2〉는 시종 객과 청한자의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군주의 잘못된 불교 숭배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다. 특히 양 무제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다. 불교의 관점에서 군주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는 불교적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애민의〉나 〈방본잠〉에서 보여준 유교적 정치사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불교라는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함으로써 그의 유교적 정치사상이 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시습은 유교만이 진리가 아니며 불교 역시 하나의 독자적 진리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교가 유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김시습은 두 사상의 우열을 따지기보다는 '공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한잡저 2〉에 이어 쓴 〈임천가화〉 역시 김시습의 독특한 사상적 풍모를 보여준다. 이 책에서 김시습은 불가(佛家)나 민간에 전해 오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가차 없이 비판한다. 또한 군주의 그릇된 불교 숭배를 비판하기도 하고, 승려의 타락상을 주체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상정된 독자는 〈청한잡저 2〉와 조금 다를지라도 반권력적 지향과 높은 비판성은 〈청한잡저 2〉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임천가화〉의 이런 면모는 다분히 김시습의 유교적 감각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불교를 이치에 맞게 해석해 내고자 하는 그의 집요한 합리적 노력 역시 마찬가지다. 〈임천가화〉와 같은 반권력적·비판적 성격의 불교 필기는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찾기 어렵다.

김시습이 이처럼 20대 이후 전 생애에 걸쳐 유·불을 겸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계인'이기에 가능했다. 그는 방내는 물론 방외에도 안주할 수 없었다. 그의 실존적 거소는 방내와 방외의 사이, 즉 그 '경계'에 있었다. 그래서 김시습은 유교와 불교를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이다.

사상가로서 김시습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그가 '고통'에 대한 비상한 감수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김시습은 평생 신산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런 자신의 실존이 그런 감수성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불교를 통해 인간의 본원적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가 유교의 인애를 적극적으로 사유하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인민적 입장에서 백성의 처지와 삶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불교 공부에서 얻은 고통에 대한 깊은 감수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핵심만 추린 〈금강경〉 해설서



금강경 산책
설담 운성 스님 지음
도서출판 도반 / 1만5천원

"'금강반야'는 어떤 무엇으로도 무너트릴 수 없는 세상 제일의 지혜를 말한다."

〈금강경〉을 산책하듯 가볍게 해설한 해설서가 나왔다. 설담 운성 스님의 〈금강경 산책〉이다.

〈금강경〉은 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이다. 〈금강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선(禪)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깨달음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보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금강경〉 또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운성 스님의 〈금강경 산책〉은 〈금강경〉의 한글 경문 핵심만을 추려서 현대인들이 약 30분 정도에 읽을 수 있도록 완성하고, 거기에 어떤 철학적, 관념적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수행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저자는 "경전 문구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핵심을 잘 드러내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그 이야기 속에 경전의 제목에서와 같이 날카로운 선(禪)의 칼들이 숨겨져 있으니, 그 칼이 제대로 보이는 어느 날부터는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원효 스님의 흔적을 따라서



원효스님, 그 마음을 찾아서
이경렬 지음
우리출판사 / 2만8천원

전국 107개 원효 인연처 순례
원효 스님의 삶과 행적 되짚어
전국 9개 권역과 일정별 코스
시인 감수성과 연구자 관점도

"나를 유혹해서 어쩌자는 거냐?" "스님, 저는 유혹한 적 없습니다. 스님이 저를 색안으로 볼 뿐이지요"

순간 원효는 온몸에 벼락을 맞은 듯했다. '색안으로 볼 뿐'이라는 여인의 목소리가 계속 귓전을 때렸다. 원효는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옥류천 맑은 물에 뛰어들었다. 정신을 가다듬자 비로소 폭포 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이 생겨 가지가지 법이 생겨나는 것이니 마음을 멸하면 또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 나, 원효는 자재무애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참된 수행의 힘이 있노라." 원효의 말에 여인은 미소를 머금었다. 여인은 관세음보살이었다. 원효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자재무애 경지를 증득했다. 그리고 그곳에 암자를 열었다. 자재암이다.

신간 〈원효스님, 그 마음을 찾아서〉는 원효 스님과 관련된 전국의 절과 절터를 모두 순례하며 원효 스님의 삶과 행적을 되짚어 본 수상록이자, 관련 사찰 순례 가이드북이기도 하다.

책에 소개된 절과 절터는 모두 107곳으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박2일 또는 2박3일 코스로 탐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순례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혔다.

시인이자 교육공무원으로 살아온 저자는 현직에서 은퇴한 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조선시대 수난사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연구에 매진했다. 저자가 원효를 만난 건 그 이후 경기도 화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그런 만큼 이 책에는 '시인 이경렬의 구도자적 탐방이야기'란 부제에 걸맞게 관련 사찰의 정보와 함께 시인의 감수성과 연구자의 관점이 돋보이는 글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원효가 종교와 세속의 경계를 거침없이 넘나드는 무애행으로 과감히 대중 속으로 들어가 백성들의 언어로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종교적 위로와 희망을 설파했다면, 이와 달리 출가자로서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수행 정진, 제자 양성, 불사와 같은 승려 본연의 삶에 충실하며, 이 땅에 화엄종을 연 의상과 대비하며 두 스님의 서로 다른 사랑법을 논하기도 한다.(308쪽)

〈원효의 '해골물과 득도'의 진실〉 등에서 볼 수 있듯 책은 단순한 탐방기를 넘어 연구자의 시선을 느끼기에도 충분하다. 이렇듯 이 책은 원효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원효 스님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와 사상은 물론 당시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 이경렬은 1990년 〈우리문학〉으로 등단한 뒤로 4권의 시집을 냈다. 2014년 명예퇴직 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조선시대 수난사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연구에 몰두했다. 이후 경기도 화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원효에 대해 알게 됐고 출간으로 이어졌다. 저서로 시집 〈내 강물의 거주지를 위하여〉 〈산객〉, 수상록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구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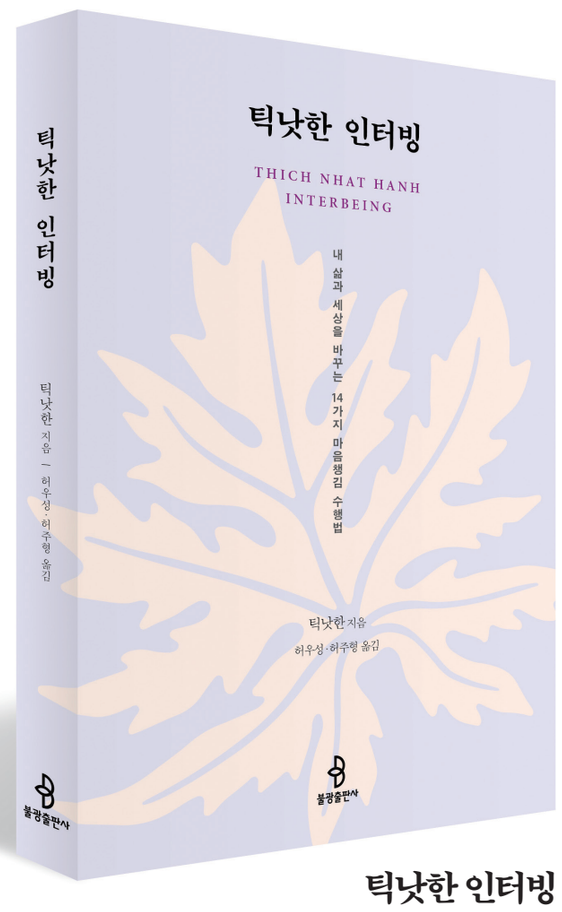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틱낫한 스님이 알려주는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위한 14가지 마음챙김 수행 지침서

틱낫한 스님의 핵심 가르침 '상호존재(Interbeing)'를
삶에 녹여내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담아낸 유일한 책

'베트남전쟁'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틱낫한 스님이 만든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은 전통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걸쳐 현재까지도 틱낫한 스님이 세운 명상 공동체 플럼빌리지에서 활용되고 있다.
틱낫한 스님의 핵심 가르침인 '상호존재(Interbeing)'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 만물의 연결성을 강조한 이 수행법은 단순한 명상 기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는 종합적인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지침이자 현대인을 위한 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틱낫한 인터빙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
틱낫한 지음, 허우성·허주형 옮김 | 264쪽 | 18,000원